#### 갤러리 이알디

### **ERD**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13가길 25 월-금 오전 10시~오후 7시, 토 오후 12시~오후 7시, 일, 공휴일 휴관 25, Hoenamu-ro 13ga-gil, Yongsan-gu, Seoul Mon-Fri 10am~7pm, Sat 12pm~7pm, closed on Sun

#### 갤러리 이알디 부산 GALERIE ERD BUSAN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02. 대림맨션 305호 수-일 오전 10시~오후 7시, 월, 화 휴관 Daelim Mansion #305 302,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Busan Wed-Sun 10am~7pm, closed on Mon, Tue

tel. 02-749-0419 (Seoul), 070-4115-0419 (Busan) email: art@galerieerd.com homepage: www.galerieerd.com instagram: @galerie\_erd

#### 함미나

함미나 작가는 계원예술대학을 공간연출학 전공하였으며, 일곱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 을 거쳐 여덟번째 개인전을 갤러리 이알디 부산점에서 진행한다. 작가에게 있어 예술이란 장르구분 없이, 계속 마음이나 머릿속에 많이 머물러 있고 계속 기억에 남으며, 좋은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어떠한 감정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저한테 계속 여운을 주는 것들이 모든게 다 예술인 것 같다. 또한 본인의 작업을 할 때도 그런 감정이 제일 많이 투영 되고 작업에 많이 표현이 되는 것들에서 애정이 가고 계속 보듬어보게 되는것 같다.

이알디 부산점에서 진행되는 'Where would I be' 이번 전시는 작가가 잦은 전학생활과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동해에서 눈이 내리지 않는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느낀 바다 풍경과 지역적인 주변 환경,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까지 작가가 성인이 되어서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삶에서 느낀점을 작업으로 표현한 전시이다. 작업에서 표현되는 주인공의 모습들은 아이들이고 유년시절 바닷가에서 생활했을 때의 느낀점들을 주제로 작업에 투영 되어있다.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들은 작가의 재해석을 통해서 해서 작업에 많이 표현되어간다.

#### Mina H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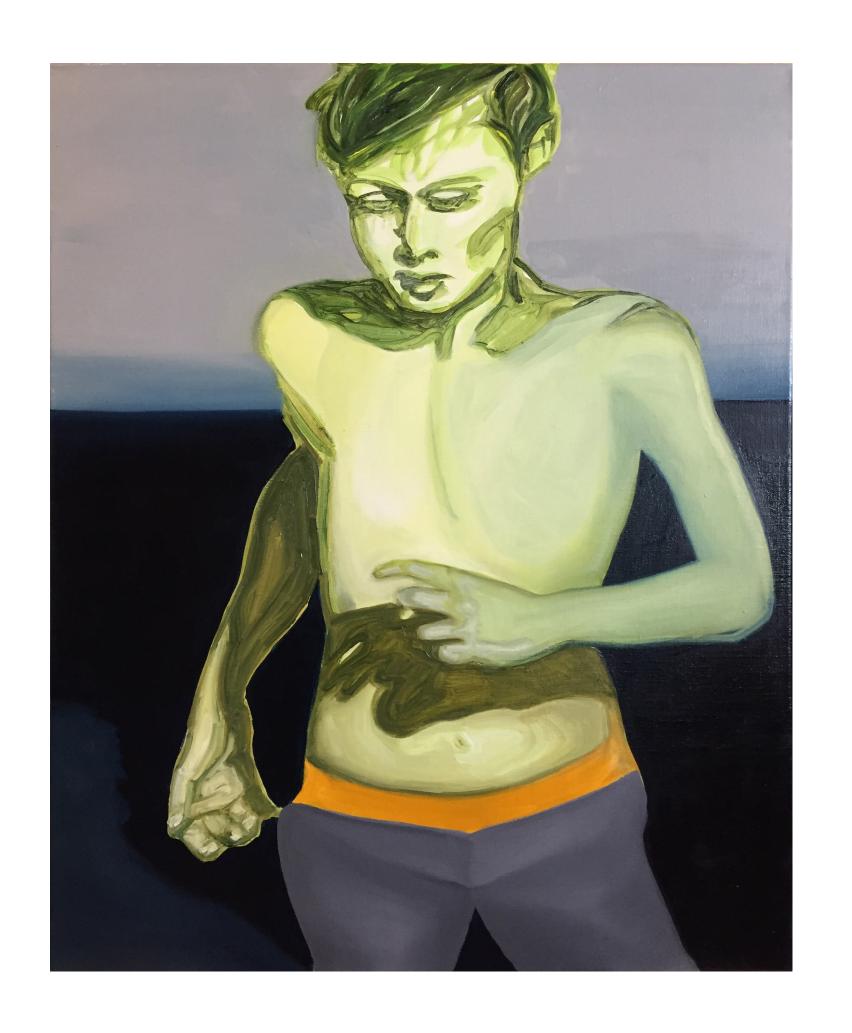
Mina Ham majored in Dramatic Space Creation at Kaywon art university, and after having several solo/group shows, she is now presenting her eighth solo exhibition at Galerie ERD Busan. To Ham, art is a residue from something that constantly remains in her heart and surrounding scenery. Whether it is positive or negative, every lingering imagery from her emotion is considered art. Her emotions get projected and attached to her work the most when she immerse herself in the act of painting.

Ham's new exhibition 'Where would I be' at Galerie ERD Busan spotlights her feelings and experience from her frequent school transfer, also from the changing scenery and unlikable settlement by moving from snowy city Donghae to waterfront city Busan. In Ham's work, the protagonists are mostly children, with a theme of childhood scenery on the beach. The momentary feelings she had was expressed on the canvas with her reinterpretation.

#### night flying<sup>1</sup>

2020 Oil on canvas 65.1×80.3 cm

1,250,000 KRW



#### night flying<sup>2</sup>

2020 Oil on canvas 65.1×80.3 cm

1,250,000 KRW



####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1

2019 Oil on canvas 53.0×45.5 cm

500,000 KRW



####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sup>2</sup>

2019 Oil on canvas 46.0×37.5 cm

500,000 KRW



####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3

2019 Oil on canvas 45.0×45.0 cm

500,000 KRW

